

Seongnam Culture

성남문화

2017. 12 후반기 Vol. 27



홍연화 作 「항아리」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



이광용 作 / 기다림

한국사진작자협회본부 자문위원, 본부이사
경기도협의회장 역임
성남문화의집 사진교실 출강 외



홍연화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
경기 으뜸이 선정(한지공예부문)
경기도 여성상 수상(예능부문) 경기도지사
사)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전통공예부문 초대작가
사)한국미술협회 성남시지부 모란현대미술대전 운영위원
사)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전통고예분야 2차 심사위원
성남시 한지공예가협회 지회장

Contents

- 1 표지
- 2 목차·화보
- 3 신년사
- 4 특집 - 성남시 지명산책
- 5 하반기 사업

경기도 민속예술제, 개천절 도당굿, 둔촌중국백일장,
강정일당상 시상, 순국선열 추모제, 송산백일장
- 9 업무협약 가천대학교, 심양시 교육연구원
- 10 성남학연구소
- 11 2017 완료사업

성남학아카데미, 인문학아카데미,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역사인물 명언과 캘리그라피의 만남
- 13 수강생 전시 및 발표회

문화학교 졸업작품 전시, 발표회, 문화의집 성악반 정기연주회,
문화의집 서양화반 작품전시회, 문화의집 사진반 작품전시회,
문화의집 전시 발표회
- 14 문화원 이모저모
- 17 하반기 향토유적답사
- 18 문화의집 강좌 및 동아리 소개
- 19 사진으로 보는 2017 문화원 상반기 사업
- 20 2018 상반기 사업



발행일 2017. 12. 30 발행인 김대진 편집인 김정진 김시준 발행처 성남문화원
주소 133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 전화 031)756-1082, 1028 팩스 031)756-1056
홈페이지 www.seongnamculture.or.kr

신년사



성남문화 융성을 위하여

성남문화원장
김 대 진

문화를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희망찬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흔탁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는 시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뜻대로 다 이루어져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 날에 성남문화원은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성남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봉행(奉行)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명산대천(名山大川)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고 새해 첫날에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국태민안을 축원했습니다.

금년은 무술년(戊戌年) 개띠 해입니다. 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장 오랜 세월을 인간과 친근하게 지내 온 동물입니다. 영리하고 충직하여 배신을 하지 않으며, 자신을 해치는 상대에게는 용감하게 투쟁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집을 지켜 주기도 하고, 사냥을 도와주기도 하며,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도 하는 고마운 동물입니다. 2018년 한 해에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일들이 접근하지 못할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가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에 문화활동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충직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술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며 큰 소망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원 발간 <성남시 지명 산책> ABN 아름방송 통해 방송

성남문화원은 지명총람에 담긴 스토리를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ABN(아름방송)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성남지명 산책’을 방송하고 있다.

‘성남지명산책’은 우리 고장의 지명을 통해 그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명에는 판교 성내미 마을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성남’이라는 지명이 이미 600년 전부터 전승되어 온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조상의 사고와 의지가 담겨진 것도 있고, 생활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있으며 해와 달, 바위, 냇물 등 자연을 나타낸 것도 소개되며, 지역의 행정, 전통시장, 문화인물을 나타낸 것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명이 만들어진 배경 스토리를 소개해 주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고증한 스토리에다 원주민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당초 20회 방영할 예정으로 기획되었지만 시민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40여 편 넘게 이어오고 있다.



제21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성남시 대표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 장려상·소품상 수상

9월 22일, 23일 양일간 김포시 종합운동장에서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성남시향토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향토민속놀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가 참가했다.

경기도민속예술제는 도내 31개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보존회는 22일 첫날 여섯 번째로 출전했으며, 대회 출전을 위해 성남농악보존협회 등과 함께 출연진 모두가 중원구청 지하보도에서 3개월간 최선을 다해 연습했다.

'이무술'은 과거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였던 곳으로 현재는 분당구 이매동을 일컫는 마을이름이다.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짓거나 증축 할 때에 집터를 다지고 고르며 지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에서 집을 짓는 동안의 안전과 집을 지은 후의 복록을 빌고 평안을 기원하는 고사와 덕담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요로 전해오다가 분당신도시 개발로 집터 다지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다.

성남문화원은 1982년 집터 다지는 소리 경험자인 원주민 故 김영환 외 마을주민, 방영기(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전수 조교), 故 최종민(교수, 국악인) 등 전문가의 고증을 바탕으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를 복원·재현해서, 1983년 3월 27일 마을주민과 함께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후 각종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성남시의 대표로 출연하고 있으며, 장려상, 소품상을 수상했다.



단기 4350년 개천절 단군제·도당굿 문화축제(제23회) 개최

10월 3일 '은행동 산성놀이공원 놀이마당'에서 개최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단군성조연합회(회장 이경식) 주관으로 1부 '선의식'과, 2부 개천절 기념식에서는 성남농악보존 협회의 '길놀이', 경기소리사랑회 '한량무'로 식전 행사 후, 기념식에 이어 3부 '도당굿 문화 축제'에는 단군성조연합회 회원 전원이 출연하는 '초혼제'를 시작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오진수 선생의 산거리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나채옥 선생의 불사거리, 소리친구회가 만요 '배 띠워라, 양산도 이향우 경기민요단의 '회심곡', 김태환, 김옥자, 문소현, 지옥경 외 '대신거리'와 오방신장 작두장군 송옥순이 펼치는 '작두거리', 품바 민들레의 신명나는 '여흥거리'로 이어졌다.



제12회, 둔촌 중국백일장에서 꿈나무들 글짓기 대회 10월 14일, 심양시조선족1중에서



료녕신문
kr.ind.com.cn

부모에 대한 효행, 친구와의 우정, 나라에 대한 충성, 옳바른 삶... 10월 14일, 심양시조선족제1중학교에서 열린 제12회 둔촌 중국백일장에서 주최측은 이처럼 '둔촌' 이집(둔촌의 본명)을 소개하면서 그 정신을 전달하고자 올해 시제를 '함께 나눔', '우리는 하나다', '마음 수련', '가을 엽서'로 정했다.

이날 심양지역 조선족 중소학생, 한국류학생 도합 600여명이 모였다. 조선족학생들은 한국에 돈벌이 나간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가족갈등, 친구관계, 개인성장 등을 둘러싸고 글을 지었고 부분 한국류학생은 조선족친구들과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어 양국 학생의 우정을 보여주었다.

문학인, 교육연구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총체적으로 글의 구성과 주제표현에서 일정한 제고가 있으며 부분 문장은 결말에서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었다"면서 "글 가운데 효도, 우정과 옳바른 삶에 대해 적잖은 각성을 한 것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심사결과 소학조에서 소가툰구조선족중심소학교 김선미 학생과 박혜정 학생, 초중조에서 심조6중 오지헌 학생과 심양주말한글학교 송채환(한국류학생) 학생, 고중조에서 심조1중 류정이 학생과 김현려 학생, 교원조에서 심조2중 김동연 교원이 각각 장원상을 수상했다.

작품 심사기간 각 조선족학교에서 준비한 장기자랑무대가 펼쳐졌다.

한편 올해 백일장은 중한 수교 25주년 및 심양시와 한국 성남시 자매결연 19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것으로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심양시교육연구원과 한국 성남문화원은 '둔촌 중국백일장' 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해 행사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각측의 직책을 명백히 했다. 의봉 심양시교육연구원 부원장과 김대진 성남문화원 원장이 협약서에 각기 서명했다.

협약서에 따라 심양시교육연구원은 행사 일정 수립 및 섭외, 백일장 제목 제공, 참가학생 유치, 중한 청소년 장기자랑 참가팀 섭외, 장학금 배분 및 지급 등을 책임지고 성남문화원은 행사비 지원, 한국학생 참가인원 선정, 행정문구 및 기념품 제작, 입상작품집 준비 및 발간 등을 책임진다.

올해 행사는 심양시교육국, 한국 성남문화원에서 주최, 심양시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였으며 한국 성남시, 심양시조선족문화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단위에서 후원했다.

- 료녕신문, 공선희 특약기자, 최동승 기자 -



2017, 아홉번째 시낭송 韓·中 문학인 만남 중·한문학인 시(詩)로 만나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 중한수교 25주년 기념 및 심양시와 한국 성남시 국제자매 결연 19주년 기념행사인 '2017년 중한 문학인 만남. 아홉번째 시랑송회'가 10월 14일, 중한교류문화원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은 인사말에서 "해마다 이어지는 시랑송회를 계기로 성남문화원과 심양시조선족문화회의 우정이 더욱 돋독해졌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이경덕 부총령사와 동북3성 한국인련합회 손명식 회장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한중 문학인들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중한 양국 문학인은 풍부한 감성으로 윤동주의 <자화상>, 나태주의 <동심> 등 18수 시를 랑송했다. 시랑송 사이사이에 다양한 문예공연도 추가해 행사에 볼거리를 더했다.

시랑송회에 앞서 한국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은 이번 행사에 도움을 준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이경덕 부총령사, 심양시 조선족문화회 권춘철 회장, 동북3성 한국인련합회 손명식 회장, 중한교류문화원 김경철 원장에게 각각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 성남문화원과 심양시조선족문화회에서 주최, 주심양 한국총령사관과 동북3성 한국인련합회, 중한교류문화원 등 여러 단체에서 후원하였다.

-료녕신문 백일정 기자-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강정일당 업적기리는 제20회 강정일당상 수상자로 원영자 여사 선정...

10월 23일 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시상식 개최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1986년) 된 후 한국 문화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조선후기 여류문사 강정일당(1772-1832)의 업적을 기리고자 매년 시상하고 있는 제20회 강정일당상에, 하대원동에서 30여 년간 거주하는 원영자(54, 하대원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여사를 선정하여 10월 23일 오후 3시 성남시청 한누리홀(3층)에서 시상했다.

효행과 참 아내의 도리, 참 어머니상과 한국여인의 표상이라 일컬을 수 있는 강정일당상 수상자로 선정된 원여사는, 1987년 6월 결혼하면서부터 시조모 및 시부모와 함께 4대가 한 가정에서 살며, 가족간의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부는 파킨스병으로 투병 중 별세하였고, 시모는 뇌병변 장애2급으로 현재까지 봉양중이다.

원여사는 2006년 3월부터 하대원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위한 여름캠프 추진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컨텐츠를 개발, 추진하며 지역아동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홀로 어르신을 위한 효도관광 등 지역 어르신을 돌보고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경로사상 고취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또한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며,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주민자치위원장 역임중에는 성남시 지역 공동체 공모사업 참여로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와 주민 화합에 최선을 다했다.



제70회 순국선열의날 기념 제12회 남한산성권 순국선열 추모제

11월 17일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개최

남한산성문화권협의회(성남·광주·하남)가 주최하는 <제12회 남한산성권 순국선열추모제>가 경기동부보훈지청 후원으로 11월 17일(금)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김순옥 무용가의 진혼무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개회사, 제문봉독에 이어 추모사 그리고 추모시 낭독, 현화 및 분향과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순으로 진행됐다.

남한산성문화권협의회는 2006년 4월 25일 창립된 이후 ‘순국선열 추모제’,<산성논지>발간, 삼봉사생대회,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학술회의 등 문화사업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국광복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맞서 싸우시다 희생되신 성남, 광주, 하남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해마다 3개 문화원이 행사장을 바꿔가며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성남문화원에서 열렸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 송산 조견선생 추모 제17회 송산백일장 개최

9월 16일(토) 성남시청 내 공원에서 개최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송백(松柏) 같은 의기충절(意氣 忠節)을 역사 위에 남긴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 송산 조견 선생을 추모하는 제17회 ‘송산(松山) 백일장’이 9.16(토)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송산 조견 선생(1351~1425)은 고려말에서 조선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양이고 초휘는 윤(胤), 자는 종견(從見), 호는 송산, 시호는 평간공(平簡公)이다.

조견 선생의 묘역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3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말선초의 사대부 묘제로 석물(묘표, 문인석, 석등 등)이 600년이 넘은 묘역으로 성남문화원 학술 토론회 및 문화재 지정 청원에 따라 2001년 2월 20일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로, 조견 선생의 아들 석실공 조철산 묘역은 성남문화원 청원으로 2016년 3월 17일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관내 초·중학생, 일반부(산문, 운문)로 참가했으며 시상은 10월 31일 학술회의를 마친 후 우수입상자 총 49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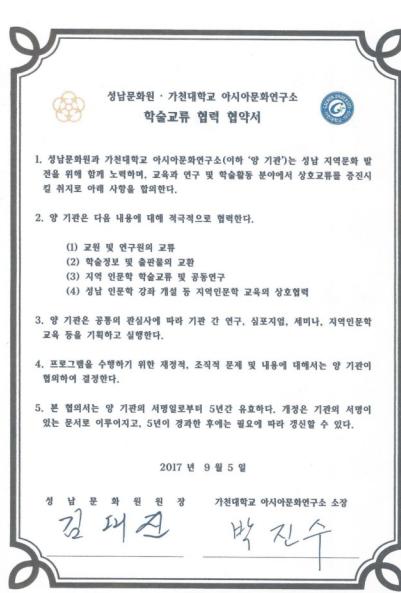
중국 심양시교육연구원과 업무협약

지난 10월 14일 중국 심양에서 한국 성남문화원과 중국 심양 교육연구원은 둔촌 중국 백일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둔촌백일장'을 통하여 양국의 우호와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 교육협력을 통한 우리 민족문화고양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었다.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와 업무협약

지난 9월 5일 성남문화원에서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와 성남문화원이 학술교류 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성남문화원과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는 성남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교육과 연구 및 학술활동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증진시킬 취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22회 학술회의 <성남 판교의 역사 재조명> 개최

성남문화원(부설) 성남학연구소(소장 조남두)는 10월 31일 오후 2시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성남 판교의 역사 재조명>을 주제로 제22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교통사적 측면에서 바라 본 <성남 판교 역사의 재조명>을 대주제로 조병로 경기대명예교수가 기조발표를 하였고, 제1주제는 <1811년 조선통신사 판교참 기록의 가치>를 하남 풍산고등학교 유병상 박사가 발표했다.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이 기록은 판교참에서 사신단 일행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판교의 역사 복원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제2주제는 숙명여대 흥대한 박사가 <역원제도의 운영과 성남 판교>를 주제로 서울과 지방을 잇는 핵심 교통로에 위치한 판교역과 판교원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제3주제는 <판교 역사복원과 문화행사 추진 방안>을 동서울대 서승갑 박사가 낙생행궁, 판교역을 배경으로 사신행차와 조선시대 강무(군사훈련), 복식과 음식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행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은 윤종준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과 이상훈 대한황실문화원 전례부 차장, 조남두 성남학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이 날 학술회의를 통해 판교의 첨단 IT기술과 협력하여 조선시대 강무(군사훈련)를 소재로 한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강무와 사신행렬, 낙생행궁, 판교주막거리 등을 약 100m 길이의 OLED 영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현한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성남문화연구> 제24호 발간

성남학연구소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남문화연구> 논문집 발간은 1993년 연구소 설립 이후 해마다 발간되어 올해 제24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수록되었다.

홍대한, 조선시대 태실조성 특징과 운영 연구
전봉구, 망경암을 중심으로 한 역사고찰 및 기초조사 연구
이은희, 성남 모란장에 대한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
윤종준, 성남시 무용 예술의 역사
최만순, 삼천병마골 이야기를 활용한 역사공원 조성 방안 연구
조남두, 성남시 문화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부록 : 通信使 往回時 廣州府 板橋站 舉行謄錄



정정보도

한산이씨봉화공파종회 귀중

한산이씨봉화공파종회(이사장 이근복)에서 2017년 9월 19일 『돌마마을지』 게재 내용 오류 정정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정정하여 알립니다.
한산이씨봉화공파 종회에서 이의 제기한 내용은 본원이 2008년 11월 발행한 『돌마마을지』(하권) 105쪽 9줄부터 106쪽 3행까지의 내용입니다.

“수내동의 한산이씨는 한성군(韓城君) 이질(李秩)의 막내딸이 율동(栗洞)의 청주한씨 가문의 한례원(韓禮源)에게 출가(出嫁)하였는데, 4촌인 토정 이지함(土亭 李之?)이 이곳의 지세가 좋으므로 청주한씨 문중의 한인원(韓仁源), 한의원(韓義源), 한지원(韓智源) 등의 사돈들과 한산이씨 문중 이각(李殼)의 사위인 한여번(韓汝蕃)과 협의하고 한씨 문중 어른들에게 허락하고 증여를 받아 봉화공(奉化公) 이장윤(李長潤)의 묘소를 수내동으로 이장하고부터 자손들이 세거하였는데 묘자리가 금구득수혈(金龜得水穴)이라는 천하명당이라서 손자인 기(?)와 증(增) 등 후손들이 크게 영달하였다.”

위 내용은 한동억 향토사학자가 집필한 부분으로서, 이장윤의 산소가 있는 중앙공원 주변의 토지를 청주한씨 문중에서 증여한 것으로 묘사한 부분이 한산이씨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정정 요청이 있어서 한산이씨 봉화공 종회에서 첨부한 단종실록(1453. 11. 4 및 1455. 1. 24), 세조실록(1458. 6. 29) 등의 기록과 김학수 박사,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일대가 봉화공의 조부인 이계전(李季甸)에게 공신전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돌마마을지』 하권에 서술된 한동억 향토사학자의 견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본원의 학술연구 서적은 전적으로 집필자에게 고증의 역할까지도 맡겨지고 있고, 본원의 의견과 다른 학술적 견해도 있으나 앞으로 더욱 세밀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이 정정보도문은 본원의 학술연구지인 『성남문화연구』 제24호(9월 20일 발행)에도 게시하였습니다.

01

2017 성남학 아카데미, 큰 호응 속에 마무리

우리고장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전통, 사회, 인문, 교양 등을 주제로 하는 특색강좌 ‘성남학 아카데미’는 성남의 역사, 문화 등 ‘성남학’의 심학적인 내용은 물론, 시민들의 인문·교양에 대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마련되었다. 8월 30일 첫 강좌를 시작하여 하반기 16주 강의와 1회의 현장답사가 진행됐다.

‘성남학 아카데미’는 2010년 ‘향토문화 아카데미’로 시작하여, 2011년 ‘성남학 아카데미’로 이어져 오면서 올해까지 7년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성남학연구소 운영을 통해 350여편이 넘는 ‘성남학’ 연구 논문 성과와 지난 7년간의 ‘성남학’ 강좌 운영을 바탕으로, 성남의 뿌리를 찾고,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남학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이번 ‘성남학 아카데미’는 시민들의 다양한 배움의 장이 되도록 새로운 강사와 주제로 기획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마무리 됐다.



02

성남문화원·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주최 제6기 성남시민을 위한 인문학 수요강좌 10주 진행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성남문화원이 공동주최하는 ‘제6기 성남시민을 위한 인문학 수요강좌’가 9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개강식을 가졌다. 이길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한국’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됐다.

‘성남시민을 위한 인문학 수요강좌’는 성남시민의 인문학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고, 교양을 넓히고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들이 다양한 인문학 주제로 심도있는 강의로 마련했다.

그동안 2014년부터 현재 총 6기를 거쳐 31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성남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됐다.



03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승공예 : 달빛 길어올리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지승공예 : 달빛 길어올리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이 5월~11월까지 약 7개월간의 강의 끝에 마무리 되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전통공예인 지승공예를 지역에 홍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지승공예란 한지를 꼬아서 새끼줄처럼 만들어 그 줄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야 함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드는 특성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지승공예를 통해 취미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양성하고 지승공예를 널리 알리는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11월 21일 ~ 24일까지 문화원 1층 로비에서 4일간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작품전시회는 지승스텐드, 안경 케이스, 팔각함, 보타이, 브로치, 연필꽂이 등 그동안의 수업을 들으며 만들었던 지승작품과 전시를 위해서 만든 특별 작품으로 전시가 이루어졌다.



04

성남시 평생학습원 지원 역사인물 명언과 캘리그라피의 만남

8월 16일~11월 30일까지 수요일 진행

성남문화원은 성남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으로, 8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역사인물 명언과 캘리그라피의 만남’ 특색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최명숙 가천대 문학박사 등 저명한 교수들이 매주 성남시 향토문화재 1호 강정일당을 비롯한 송산 조견 선생, 충무공 이순신, 남상목 의병장 등 역사 인물들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서예가 유명현(성남 캘리그라피협회) 강사의 지도로 명언들을 직접 캘리그라피 예술로 체험하는 수업으로 진행됐다.



성남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제22기 수료식 및 졸업 작품·전시 발표회 개최

성남문화학교 2017년도 제22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졸업 작품 전시·발표회를 12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수료식은 가야금반을 비롯, 9개강좌 16개반에 200여명이 입학하여 1년과정으로 운영되어 성남시립국악단의 식전 축하공연과, 1부 수료식에서는 수료증과 표창장 수여, 2부 졸업작품 발표회는 가야금반(아리랑), 경기 민요반(태평가), 한국무용반(호남 산조춤, 봄이 오는 소리), 풍물반(앉은반 설장구, 삼도 사물놀이), 판소리반(만고강산), 영어문화반(Paloma Blanca) 발표와 한문서예반, 문인화반, 한글서예반에서는 64점의 작품을 일주일간 전시했다.

성남문화학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1996년 개설되어 1999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지정됐으며 지난 22년 간 총 370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명실공히 성남시민들의 평생 문화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성남문화의집 수강생 작품전시·발표회 개최

12월 15일 (금) 오후 2시 성남문화의집 3층 강당에서 개최

성남문화원이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성남문화의집은 「2017년도 수강생 작품 전시·발표회」를 12.15(금) 오후 2시 성남문화의집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금년 전시·발표회는 성남문화의집 수강생들이 수업을 들으며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서양화, 동양화, 사진, 한지공예, 지승공예, 한문서예 6개반의 작품전시와 한국무용(태평무), 풍물(휘모리장단 염음), 우리춤체조(수건입춤), 클래식 기타(자장가, 그 옛날에, 그 겨울의 찻집, 옛시인의 노래), 성악교실(눈이 오는 날의 회상, 돌아오라 소렌토로), 노래교실(묻지 마세요, 청춘아 어디갔니), 경기민요(방아타령, 양산도 아리랑, 자진 방아타령), 댄스스포츠A(룸바, 자이브), 댄스스포츠B(왈츠) 등 9개반의 발표 공연이 이루어졌다.

행사장에서는 식탁위의 동의보감(한방차 시음), 캘리그라피(손수건에 가툰써주기) 2개 반의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성남문화의집 성악반 「Belcanto」 LOVE Concert

12월 5일 (화) 15:00 성남아트센터 큐브프라자 3층 미디어홀

성남문화의집 성악반 성악동아리 Belcanto가 지난 12월 5일에 제9회 정기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김정진 선생이 가르치는 성남문화의집, 서현문화의집, 수내1동 가곡교실, 동아리 벨칸토 4개의 팀이 모여서 우리가곡, 이탈리아가곡, 독일가곡, 오페라아리아, 뮤지컬,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풍성한 불거리를 제공했다.



성남문화의집 「서양화반」 '꿈을 향하여' 전시회

12월 11일부터 열려 성남문화의집 전시실에서

성남문화원이 위탁 운영중인 성남문화의집 서양화반 수강생들이 매년 개최하는, 제13회 '꿈을 향하여' 전시회가 성남문화의집 3층 전시실에서 12. 11(월) ~ 14(목)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정애 선생의 '금낭화'를 비롯하여, 박선영 '나의 마음', 기희정 '선플라워', 정복자 '무지개', 허윤옥 '푸른꿈', 김선미 '한가한 오후', 김정숙 '종소리', 김선영 '선라이즈', 최지안 '사랑', 김민지 '기쁨', 김혜숙 '남한산성', 한금란 '가을엽서' 작품이 전시됐다.



성남문화의집 「사진교실」 '빛이 머무는 공간' 두물머리 사진전

12월 19일 ~ 22일 성남문화의집 전시실에서

성남문화의집 사진반의 네 번째 사진전인 '빛이 머무는 공간', 두물머리 사진 전시회가 이광용 강사 지도로 열렸다. 올 해는 각자 다른 공간에서 사진을 찍어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평 두물머리를 장소로 선택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사진을 촬영해 준비한 전시회이다.



「성남시 문화상」 성남학연구소 전봉구 연구위원 수상

2017년 9월 27일 (수) 제44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인 전봉구 동서울대학교 교수가 성남시 문화상(학술부문)을 수상했다.

전 교수는 1983년부터 동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성남문화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천림산 봉수복원, 전통사찰에 대한 연구 등으로 문화상을 받았다.



성남문화원 임직원 단합대회

11월 2일 (목) 강원 삼척 일대

성남문화원 임직원들이 단합대회를 강원도 삼척 일대를 다녀왔다.

삼척 환선굴은 약 5억 3천만년 전 생성된 석회암동굴로 동양최대의 크기이다. 미인상, 거북이, 항아리 등 다양한 석주들이 웅장하게 발달되어있는 점이 특색인 대형 동굴인 [환선굴]과, 강원도 유명 설화의 관광지이자 예로부터 영동지방의 절경으로 꼽는 [촛대바위]를 다녀왔다. 촛대바위는 남한산성의 정동쪽에 위치한 명승지이다.



성남문화원 2018 송년의밤

12월 11일 (월) 오후5시 서현동 ‘만강홍’

성남문화원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송년회가 12월 11일 만강홍에서 개최됐다.

소리꾼 김예술 ‘진도아리랑’을 시작으로 원장의 인사말씀, 허지연 팀장의 축시낭송, 성남문화의집 김정진 강사 ‘눈꽃 편지’ 축가를 불러주었고 유공 임직원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윤규상 문화팀장이 2017 경기도 지방문화원 어워드 표창 도지사상을 수상했고, 2017 성남시 문화예술분야 유공자 표창에서 흥연화 감사와 김미경 대리가 각각 성남시장 표창을 받았다.



방영기 부원장 - 「2017 우리소리를 찾아서」

12월 3일 (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보존회'가 주최하고,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문화원이 후원한 방영기 소리인생 47주년 기념공연이 성남시청 1층 온누리 대강당에서 해설과 함께 열렸다.

올해로 열여덟번째 개인발표회를 겸한 이날 공연은, 해설과 진행에 방글 선생이, 방영기 명창과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예능보유자 황용주 선생, 성남국악협회 부명희 지부장, 이향우 부지부장,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보존회원, 제자 심선영, 김복심, 정점순, 김희복, 이대호, 흥주연, 이현정, 정연경, 장수희, 오현서, 박연주, 무용 이미옥, 모듬북 난타, 꽃체네 민요단 등 100여명의 출연자가 '선소리산타령',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등 신명과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홍연화 감사 - 「지승공예! 그 전통의 맥을 잇는 사람들」

11월 6일 ~ 11월 10일 성남시청 2층 공감 갤러리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 홍연화 명장과 그의 제자 4명이 함께한 [지승공예! 그 전통의 맥을 잇는 사람들 展]이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 까지 5일간 성남시청 2층 공감 갤러리에서 개최 되었다.



홍연화 명장은 현재 성남문화의집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용준 감사 -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제2회 나도 스타 오디션 음악회」 주최

12월 29일 (금) 오후7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청소년재단 등이 후원한 제2회 '나도스타 오디션 음악회'가 작년에 이어 열렸다. 예비심사로 8팀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여 컨템포러리 재즈와 재즈 평크 분야의 선구적인 인물인 '리릿나워'의 음악 '리오 평크'는 베이스 기타 주자가 시원하고 힘찬 연주를 선사하여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성남문화원 추천, 매당 유혜선 서예가 「경기도민상 예술부문」 수상

2017년 경기도민상 예술부문에 '성남여류서예가협회' 회장인 '매당 유혜선' 선생이 수상했다.

매당 선생은 성남서예가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전 9회, 단체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중교류전' 외 회원전, 초대전 등 320여회 출품전시를 하는등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성남문화원,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원등에 출강하고 있다.



향토유적지순례 3차

9월 21일(목) 강원 춘천 일대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문학작가 김유정의 문학적 업적을 알리고 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그의 고향인 실레마을에 조성한 문학공간인 [김유정 문학촌], 강원지역의 문화의 정체성확립과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세워진 강원도 최초의 국립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아홉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구성폭포를 지나면 만날 수 있고 상사뱀설화로도 유명한 [청평사]를 다녀왔다.



향토유적지순례 4차

10월 26일(목) 경북 영주 일대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과 서천이 휘돌아 흐르는 대표적인 물동이마을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라 하는 [무섬마을],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유교의 이상을 간직한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 선비촌, 그리고 신라 의상대사가 676년에 창건한 부석사를 다녀왔다.



향토유적지순례 5차

11월 23일(목) 충남 당진 일대

남이홍장군 묘소는 (구) 성남시청 자리에 있다가, 당진으로 옮겨가서 충청남도기념물 제52호로 지정되었다. 남이홍은 정묘호란 때 청나라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패하자 자결한 충절의 인물이다. 묘역에는 여러 가지 석물이 있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은 무형유산 전승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의 전통민속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있다. 심훈기념관,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출생한 솔뫼성지를 다녀왔다.



성남학아카데미 2차 현장 답사

11월 30일 강원도 인제 일대

성남학아카데미 2차 성남학아카데미 현장답사를 강원도 인제 일대로 다녀왔다.

이날 만해 한용운이 머물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현대판 유배지였던 백담사와 만해 한용운을 기리고 그를 기리기 위한 만해마을, 인제군의 사라져가는 산골마을의 풍습과 농가의 세시풍습 등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국내 유일한 산촌민속 전문박물관인 산촌민속박물관을 다녀왔다. 마지막으로 인제군에서 태어난 시인 박인환의 얼을 기리고자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옆에 건립된 박인환문학관을 둘러보았다. 문학관은 시인 박인환이 집필하던 시절의 공간을 전시실에 구성하여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꽃다운 당신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특강진행

11월 7일 ~ 11월 28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성남문화의집에서는 지난 11월, 여성들을 위한 특별강좌를 4회 운영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 특별강좌는 정다운, 오윤석, 이선미 강사와 하나핸즈 공예반이 플라워 수공예, 가죽공예, 캔들&방향제 만들기, 프랑스 자수 등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접하기 힘든 강좌들로 꾸며 특강을 개최했다.



강좌 – 한문서예

(매주 금요일 초급/10시~12시 중급/13시30분~15시30분)

금요일 문화의집 2층에는 먹 향으로 가득해진다. 먹을 갈아 붓에 묻혀 한글자 한글자 집중을 해서 써 내려가는 서예 중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문서예는 그 속의 뜻을 생각하며 자신을 수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종기, 황윤철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강좌 – 동양화

(매주 화요일 초급/10시~12시 중급/13시~15시)

먹과 채색을 사용하여 문인화의 주관적인 기운과 골법을 김원술 강사에게 배우고 수묵화의 기초가 되는 사군자(매, 난, 국, 죽)를 시작으로 붓의 필력을 익혀 문인화를 배우는 강좌가 진행된다. 생활 속의 여유를 얻고, 작품을 그리며 즐거움을 얻는 프로그램이다.



동아리 – 한울림 창극단

(매주 수요일 16시~17시50분)

수요일 4시부터 성남문화의집 1층에서는 창극소리가 울려 퍼진다. 창극이란 창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극으로 김예슬선생이 지도한다.

판소리의 극적인 성격이 부각되고 듣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재미까지 추가된 종합적인 무대예술이다.



2017 새해 천제봉행 및 판교 마당바위 해맞이 행사 개최

1월 1일, ‘판교마당바위’에서 개최



제16회, 성남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개최

2월 11일,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



2017 판교 쌍용거(巨)줄다리기 재연회 개최

2월 12일, ‘판교동 주민센터 앞 운동장’에서 개최



제98주년 3·1절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개최

3월 1일, ‘성남시청’에서 개최



2017 성남 향토민속놀이 ‘성남 오리뜰 농악’ 공연 개최

6월 2일, ‘야탑역 광장’에서 개최



2017 성남 향토민속놀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공연 개최

6월 27일, ‘야탑역 광장’에서 개최



제26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7월 8일, ‘성남시청’에서 개최



2018 상반기 행사일정(안)

일정	사업명	사업내용
1월	2018, 새 해 천제봉행 및 해맞이 행사	일정 : 2018년 1월 1일 (월) 06:50~ 장소 : 판교 마당바위, 판교청소년수련관 광장 내용 : 무술년 신년을 맞이하는 첫날,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
	제99주년 3·1절 기념식,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일정 : 2018년 3월 1일 (목) 10:00~ 장소 : 성남시청 내용 : 식전행사, 태극 길놀이, 3·1절 기념식 및 특별공연
3월	제17회 성남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일정 : 2018년 3월 3일 (토) 장소 : 성남시청 앞 광장 내용 : 연날리기 및 전통 민속놀이 시연
	판교 쌍용 거 출다리기 재연	일정 : 2018년 3월 3일 (토) 장소 : 판교동 주민센터 앞 광장 내용 : 판교 향토민속놀이인 "판교 쌍용 거 출다리기" 재연행사
3~6월	내 고장 바로알기	기간 : 3~6월 장소 : 관내 초·중·고등학교 내용 : 성남문화해설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성남 역사 강연
3~6월	성남학 아카데미	기간 : 3~6월 장소 : 문화원 2층 제5강의실 내용 : 성남의 문화유적, 지명유래, 설화, 문화시설, 인문학 등 각계각층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강의
3~6월	성남시민을 위한 인문학 수요강좌 (예정)	기간 : 3~6월 장소 : 문화원 2층 제5강의실 내용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성남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인문학 강좌
4~6월	향토유적지순례	기간 : 4~6월 장소 : 국내 주요문화유적지 내용 :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적지 답사
4~6월	성남시 향토 민속놀이 공연① 「성남 오리풀 놀악」 「성남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일정 : 4~6월 장소 : 야탑역 광장, 산성공원 놀이마당 내용 : 잊혀져 가는 향토 민속놀이 공연

* 행사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